

## 홉스의 '시민철학'의 과학적 기초

진 석 용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홉스의 정치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현상 또는 국가현상에 대한 사고를 '과학적 지식'의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1) 홉스가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science)'은 무엇이며 2)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추론과정에서 언어와 화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3) '시민철학(civil philosophy)'이 과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주제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다음 4) 홉스의 과학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홉스의 과학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과학은 추론의 결과이다. 상상, 기억, 사려 등의 경험(적 지식)은 결코 과학이 될 수 없다. 추론은 사물의 이름, 즉 '언어'로써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은 '화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물의 이름이나 화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합리'에 빠지고 만다. 2) 과학은 대상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원인을 아는 것인데, 모든 원인은 운동(motion)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홉스가 과학의 '통일성'을 믿은 이유다. 3) 과학은 실천적인 목적을 지닌다. '시민철학'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전쟁 없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철학이 연역적 추론에 의해 얻어진 과학적 지식이 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주제어: 홉스, 시민철학, 과학, 추론, 리바이어던

홉스의 정치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현상 또는 국가현상에 대한 사고를 '과학적 지식'의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1)홉스가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science)'은 무엇이며 2) 과학적 지식

을 얻기 위한 추론과정에서 언어와 화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3) '시민철학(civil philosophy)'이 과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주제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 '프루덴티아(prudentia)'와 '사피엔티아(sapientia)'

홉스가 이해한 '과학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그가 말한 '지혜'의 두 종류, 즉 '프루덴티아(prudentia)'와 '사피엔티아(sapientia)'의 구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경험이 많으면 '사려(思慮 prudence)'가 생기고 학문(science)이 깊으면 '학식(學識 sapience)'<sup>1)</sup>이 생긴다. 우리는 보통 둘 다 지혜(wisdom)라는 말로 부르고 있으나, 라틴인들은 '프루덴티아(prudentia)'와 '사피엔티아(sapientia)'을 구별하여 전자는 경험에서 생기고, 후자는 과학적 지식에서 연유한다고 보았다(Hobbes 1651, 37).

사려와 학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홉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다루는 데 있어 선천적인 소질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기술에 더하여 공방(攻防)의 모든 가능한 자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의 어디를 공격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어디를 공격당할 염려가 있는지를 안다고 하자. 이 경우 전자의 능력은 사려에 해당하고 후자의 능력은 학식에 해당한다. 양쪽 다 유용하지만 후자 쪽이 완전무결하다(Hobbes 1651, 37).

홉스가 말한 '사려'는 폭넓은 경험과 성찰에서 오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지

---

1) 이 인용문에서 '학식'으로 번역한 'sapience'는 홉스가 라틴어 '사피엔티아(sapientia)'에 해당하는 말로 쓴 것이다.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sapience'라는 말이 흔히 '아는 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사피엔티아(sapientia)'에 해당하는 영어로는 'science'가 더 적당한 말일 것이다.

식이다. 성찰의 대상은 자기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인류 일반의 경험일 수도 있다. 인류 일반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록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려'는 본질적으로 경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 연구방법으로 얻는다. '사려'의 목적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려'는 믿을 만한 지식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단칭판단<sup>2)</sup>의 형태를 띠는 제한적 지식일 뿐이다.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현재' 뿐이다. '과거'의 일은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며, '미래'의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란 과거 행위의 결과를 현재의 행위에 적용한 마음속의 가상(假想)에 불과하다. 이처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려'에 바탕을 둔 예측을 홉스는 '추측(presump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Hobbes 1651, 15). 이러한 추측은 '징후(徵候, signs)'에 대한 사려를 통해 이루어진다. 홉스에 따르면, "징후란 어떤 결말의 전조(前兆)이다. 또한 이미 유사한 결말이 관찰된 바 있을 때에는 거꾸로 그 전조의 결말이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선행사건이 '징후'이지만, 인간의 인식의 순서로 보면 결말이 '징후'가 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서리가 내리면 겨울이 올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인 '서리'가 겨울의 징후이지만, 물이 언 것을 보고 간밤의 추위를 아는 경우에는 결말인 '물이 언 것'이 오히려 선행사건인 '간밤의 추위'를 알 수 있는 '징후'가 된다. 유사한 결말이 자주 관찰되면 될수록 그만큼 징후의 불확실성은 적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경험이 풍부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징후를 많이 알게 되고, 따라서 사려가 깊어지고 그만큼 신중해진다. "이 신중함은 천부적인 지혜도, 임기응변의 재능도 당해내지 못한다"(Hobbes 1651, 15).

사려는 과거에 존재했던 일에 대한 추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미래'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과거의 어떤 일로부터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의 추정도 미래에 대한 추측과 거의 동일한 불확실성을 갖는다. 둘 다 오로지 경험에만 근거

2) 단독 개념을 주사(主辭)로 갖는 판단. 형식 논리학에서 정언적 판단의 양에 의한 분류로, 고유 명사나 단수의 지시 형용사에 의하여 한정된 보통 명사 따위의 단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낱말을 주어로 포함하는 판단을 말한다.

한 추측이기 때문이다(Hobbes 1651, 16).

사려의 능력은 풍부한 경험과 기억에 달려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은 나이가 같을 경우 양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의 의도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경험의 기회가 서로 다를 뿐이며, 따라서 경험의 종류 또는 분야가 다를 뿐이다. “제가(齊家)와 치국(治國)은 사려의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일(business)의 종류가 다른 것이다”(Hobbes 1651, 60). 평범한 농부도 자신의 가사(家事)에 관하여는 추밀원 고문관보다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이든 과거에 대한 추정이든 경험에 기초를 둔 일반화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관찰되는 즉시 반증(反證)될 위험이 있다(Popper 1957, 103). 이 점에 있어서 ‘사려’는 포퍼(K. Popper)가 ‘역사주의(historicism)’<sup>3)</sup>라고 부른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홉스는 “사려는 결코 철학(즉 과학)의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Hobbes 1651, 664).

## II. 언어와 화법

‘프루덴티아’와는 달리 ‘사피엔티아’는 ‘과학(science)’에 기초를 둔, 추론(reason)에 의한 지식이다. 과학은 가설적·연역적 추론을 통해 일반화를 시도한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이 ‘사려’ 수준의 지식을 넘어 추론을 통한 과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언어(language)와 화법(speech)<sup>4)</sup>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능력들은 연구와

- 
- 3) ‘역사주의’란, 포퍼에 따르면, “역사적 예측이 사회과학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적은 역사의 진전의 밑바닥에 있는 ‘리듬(rhythms)’이나 ‘유형(patterns)’, ‘법칙(laws)’이나 ‘추세(trends)’를 발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과학 접근법”을 의미한다(Popper 1957, 3).
  - 4) 일반적으로 ‘language’란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을 말하고, ‘speech’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즉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 느낌 따위를 전달하는 행위’, 즉 ‘말하기(말화, 화법)’ 또는 ‘말하는 능력(언어 능력)’을 의미한다. 홉스는 이 두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speech’를 ‘언어’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노력에 의해 획득되고 증대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들을 습득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낱말(words)과 화법(speech)'의 발명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 중에는 감각 이외에는 사고와 사고의 연속이 있을 뿐인데, 이것이 화법에 맞게, 올바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능력이 된다(Hobbes 1651, 16).

언어 덕분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연속"을 "낱말(words)의 연속"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이전(移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효용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차원의 효용이다. 개인적 차원의 효용은 사고의 연속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는 기억에서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징표(徵表 marks) 같은 것으로 표시해놓으면 언제든지 그 사고를 쉽게 되살릴 수 있다. 언어는 이러한 회상(回想)을 위한 '징표' 또는 '부호(符號 notes)'의 기능을 한다. 사회적 차원의 효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낱말들을 사용할 경우 그 낱말들의 관련과 순서에 의해 자신의 관념이나 사고를, 혹은 욕망이나 공포를, 혹은 다른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이름은 일종의 '기호(記號 signs)'<sup>5)</sup>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홉스는 언어의 이 두 가지 기능을 "일반적 효용"이라고 부르고 있다(Hobbes 1651, 20).

이러한 일반적 효용 이외에도, 언어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효용은 가진다. 첫째, 현재 또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알게 된 원인을 기록하는 일과, 현재 또는 과거의 어떤 일이 초래하는 결과나 영향을 발견하여 기록하는 일이다. 둘째, 자신이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 즉 서로 의논하거나 가르쳐주는 일이다. 셋째,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상호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넷째, 언어의 장식(裝飾) 혹은 언어의 유희를 통해 화자(話者)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Hobbes 1651, 60).

5) mark, note, sign은 모두 다 부호(符號), 기호(記號), 표시(標示), 표지(標識), 징표(徵標)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각각을 구별하여 번역하기 어렵다. 어떤 번역어(譯語)를 사용하든 여기에서 중요한 구별은 언어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기호'와 '사회적 사용을 위한 기호'이다. 홉스는 전자를 mark, note로, 후자를 sign으로 지칭하고 있다.

낱말이 있으면 낱말의 사고를 말로 나타낼 수 있다. 사고의 연속, 즉 '마음속 담화(mental discourse)'를 말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발화(發話 speech)'이다. 발화의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 홉스는 낱말이 처음에 사물들을 기억하기 위해 '발명'되었는데, 나중에 '우연히(by accident)'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Hobbes 1655, 15).

홉스가 인간의 언어능력에 대해, 언어의 효용에 대해 자세히 논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 언어의 형태로 인식되거나 표현되기 때문이다. 홉스는 언어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홉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어가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라는 사실이다.

두 개의 이름이 결합하여 하나의 결론 또는 단정(斷定 affirmation)<sup>6)</sup>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인간은 생물체이다' 하는 단정이나, '만약 그가 인간이라면, 그는 생물체이다' 하는 단정의 경우, 후자 즉 '생물체'가 의미하는 바가 전자 즉 '인간'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의미한다면 이 단정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참'과 '거짓'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화법(speech)<sup>7)</sup>의 속성이니, 화법이 없다면 '참'도 없고 '거짓'도 없을 것이다(Hobbes 1651, 23).

즉 언어 덕분에 원인과 결과에 각각 '이름'을 부여하고 양자를 '관련'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식의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고 양자를 '관련'시키는 일, 즉 지적된 사물들의 재배열은 '일반화'의 길을 열어준다. 홉스는 이 과정을 삼각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6) 'affirmation'은 '무엇이 어떠하다'는 긍정 형식의 단언(斷言)을 말한다. 논리학에서는 보통 이 단언을 긍정 명제라고 부른다. 명제(proposition)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논증(argument)의 구성요소가 된다. 명제라는 말 대신 진술(statement)이나 문장(sentence)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철학적 측면에서는 이 세 낱말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지만(Salmon 1973, 1-7; Copi 1992, 14-20), 홉스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는 자세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 홉스는 'affirmation'이라는 말을 긍정 형식의 명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하고, '명제'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물체론』에서는 '단정'이란 말 대신 '명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7) 엄밀히 말하면 '언어로 나타난 사고'이다.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 마음속에 상상된 사물들의 귀결에 관한 계산을 이름들의 귀결에 관한 계산으로 바꿀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언어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 앞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두 개의 직각을 그려 놓으면, 이 사람은 한참동안 생각하고 비교해 본 끝에 그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직각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 보여준 삼각형과 모양이 다른 삼각형을 보여주면, 앞에서 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반복하지 않고서는 그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앞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변의 길이나 기타 특수한 사실과는 아무 관계없이 다만 변이 직선이고 각이 세 개이기만 하면 삼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결론, 즉 각도의 등식은 모든 삼각형에 모양과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자신 있게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발견을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의 합과 같다'는 전칭명제(全稱命題 general terms)<sup>8)</sup>로 기록할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의 개별자에서 발견된 결론은 하나의 보편적 법칙으로 기록되고 기억된다. 이 보편적 법칙만 알고 있으면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새로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보편적 법칙을 얻기 위한] 최초의 단 한 번의 계산으로 족하다. 즉 '지금' '여기에서' 진리로 발견된 것을 '언제' '어디에서나' 진리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Hobbes 1651, 21-22).

홉스는 그러나 언어를 '오용(誤用)' 할 경우에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 첫째, 의미가 불분명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잘못 기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개념을 기록하게 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말을 비유적으로 하는 경우, 즉 정해진 의미 이외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타인을 기만하게 된다. 셋째, 자기의 진정한 의지가 아닌 것을 자신의 의지라고 공언(公言)하는 경우이다. 넷째,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말하는 경우이다. 자연의 생명체는 손이나 이빨이나 뿔과 같은, 적을 괴롭힐 수 있는 나뭇대로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혀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언어의 남용일 뿐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도록 태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이

8) '전칭판단'이라고도 한다. 그 명제의 주사(主辭)가 가리키는 모든 것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명제로, 주사에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가진다. 인용문에서 '삼각형'이란 말은 '모든 삼각형'을 뜻한다.

다. 인간의 혀는 남을 괴롭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도록,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이다(Hobbes 1651, 20).

### III. 추론과 과학적 지식

전칭판단을 얻기 위한 일반화는 추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홉스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로고스(logos)’ 라는 말 하나로, ‘화법(speech)’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추론(reason)’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추론이 없으면 화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화법이 없으면 추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추론 행위를 ‘삼단논법(syllogism)’ 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정을 다른 단정과 연결하여 결론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했다”(Hobbes 1651, 25).

삼단논법은 세 개의 명제로 구성되는 화법(speech)으로서, 그 중 두 개의 명제는 전제(前提 premises)가 되고 나머지 하나의 명제는 결론(conclusion)이 된다. 홉스는 『물체론』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Hobbes 1655, 44-45).

전제(1): 모든 인간은 생명체이다.

전제(2): 모든 생명체는 물체이다.

결론: (따라서) 모든 인간은 물체이다.

여기에서 전제(1)과 전제(2)는 ‘사려’를 통해 얻어진 ‘사실에 관한 지식’, 즉 경험적 지식이다.<sup>9)</sup> 이 경험적 지식들을 연결하여 결론을 얻는 과정이 바로 ‘추론(reason)’이다. 홉스는 『물체론』에서 추론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분해(resolution)’, ‘분할(division)’, 또는 ‘분석적(analytical)’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합성(composition)’ 또는 ‘종합적(synthetic)’ 방법이다(Hobbes 1655, 66). 분석적 방법은 나타난 효과에서 출발하여 그 효과를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원인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종합적 방법은 원인과 이유에서 출발하여 그로부터

9) 물론 이 전제들은 ‘사실에 관한 지식’일 수도 있고, 다른 논증의 결론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연역논증(deduction)에서 사용된 전제들의 진리성은 그 논증 자체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삼단논법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



야기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효과들을 알아내는 것이다(Hobbes 1655, 65-90). 홉스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적·종합적 추론의 본질은 '계산(reckoning, computation)'이다.<sup>10)</sup>

'추론한다(reason)'는 것은 각 부분을 '가산(加算)'하여 합계를 생각하는 일, 혹은 어떤 액수에서 다른 액수를 '감산(減算)'하여 나머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추론 행위를 언어에 적용하자면, 각 부분의 이름을 연결하여 전체의 이름을 생각한다는가, 또는 전체 및 일부분의 이름으로부터 다른 부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다. ... 수학자가 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기하학자는 선·도형(입체나 평면)·각·비례·배율·속도·강도, 힘의 세기 등등에 대해 더하기와 빼기를 가르친다. 논리학자도 말의 연결 관계에 대해 같은 것을 가르친다. '두 개의 이름'을 합하여 하나의 '단정'을 만들고, 두개의 '단정'을 합하여 하나의 '삼단논법'을 만들고, 여러 개의 '삼단논법'을 합하여 하나의 '논증'을 만든다. 또한 '삼단논법'의 '합계', 즉 '결론'에서 어느 하나의 명제를 빼면 다른 하나의 명제가 남는다. 정치학 저술가는 여러 개의 '협정(paction)'을 합하여 인간의 '의무'를 찾아내며, 법률가는 여러 가지 '법률'과 '사실'을 합하여 개개인의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낸다. 요컨대 '더하기'와 '빼기'의 여지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추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여지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 추론이 전혀 없다(Hobbes 1651, 29-30).

이러한 논의 끝에 홉스는 추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추론이란 우리의 사고를 '표시(marking)'하고 '표명(signifying)'하기 위해 합의된 일반명사들의 연결관계를 '계산하는 것'(즉 더하기와 빼기)일 뿐이다. 여기에서 [사고의] '표시'라는 말은 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린 경우를, '표명'이라는 말은 자신이 헤아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여 논증한 경우<sup>11)</sup>를 말한다"(Hobbes 1651, 30).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발견한 귀결들을 모아서 '정리(theorem)' 또는 '격언(aphorism)' 형태의 일반적 법칙(general rules)으로 만들 줄 안다는 점에서 다

10) 김용환(1988, 31)은 홉스의 방법론이 "파두아 학파의 '분해와 결합의 방법', 그리고 기하학의 '공리적 방법'의 절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11) 여기에서 '표시'와 '표명'은 각각 '징표로 나타내기(marking)'와 '기호로 나타내기(signifying)'를 뜻한다. 징표(marks)와 기호(signs) 및 개인적 사용을 위한 기호와 사회적 사용을 위한 기호의 구별에 관하여는 주 5)를 참조하라.

른 어떤 동물보다도 우월하며, 이러한 추론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다. 홉스는 그러나 이 특권이 인간만이 빠져드는 '불합리'에 의해 약화된다는 경고를 덧붙이고 있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특권은 다른 특권에 의해 약화된다. 그것은 다른 생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빠져드는 불합리라는 특권이다. 인간 중에서도 이 특권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사람들은 바로 철학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다. 키케로가 어디에선가 철학자의 저술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진실로 지당한 말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하고 나서 추론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오직 기하학에서만 이런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래서 기하학의 결론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Hobbes 1651, 33).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 즉 '불합리(absurdity)'에 빠지는 원인을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Hobbes 1651, 33-35). 첫째 원인은 '방법론의 결함'인데, 정의(定義)에서부터, 즉 용어의 확립된 의미에서부터 추론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 '둘' '셋'이라는 수사의 값을 알지 못하고서 계산을 하는 것과 같다.

불합리한 주장에 빠지게 되는 둘째 원인부터 다섯째 원인까지는 모두 '용어의 의미를 정하는 일' 즉 '정의'가 올바르게 못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베이컨(F. Bacon 2001, 61-63)은 '언어와 명칭이 [사물과] 결합해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명칭만 있고 실재하는 않는 것들이요, 또 하나는 실재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정의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물의 어느 한 측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경솔한 명칭들이다. 언어의 오용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을 홉스는 베이컨보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베이컨과 동일하다.

여섯째 원인은 본래의 말을 쓰지 않고 은유(隱喻)나 비유 기타 수사상의 표현을 쓰는 데 있다. 예컨대 '그 길은 서울로 간다'거나, '속담이 이렇게 말한다'거나 하는 말은 일상언어에서는 용납된다. 하지만 길이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속담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추론을 하는 경우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말은 용납되지 않는다.

일곱째 원인은 '둥근 사각형' 처럼, '그 말의 소리만 있을 뿐 어떤 의미도 생각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비물질적 실체',<sup>12)</sup> '영원한 현재' 등등 스콜라 학자들이 즐겨 쓰는 많은 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말들은 '불합리한(absurd)' 말, '무의미한(insignificant)' 말, '터무니없는(nonsense)' 말이다(Hobbes 1651, 32-33, 69).

불합리에 빠져들게 되는 일곱째 원인과 관련하여 홉스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낱말을 사용하거나 혹은 낱말들을 잘못 결합하여 무의미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언어의 오용'을 일종의 '광기(madness)'로까지 여기고 있다.

결합된 단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 뜻도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외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고의로 애매하게 하여 남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 즉 스콜라 학자들이 이런 화법을 사용한다. 보통 사람들은 무의미한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예를 들어보자. [다음 문장을] 현대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번 해 보라. '제1원인은, 제2원인이 그에 의해 전자의 작용을 돕는 바의, 제2원인의 본질적인 종속의 힘에 의해, 제2원인에 꼭 무엇인가를 주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수아레스(Suarez)<sup>13)</sup>의 최초의 저서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움직이심 및 도우심에 관하여』의 제6장의 제목을 번역한 것이다. 자기가 미쳤거나 혹은 남을 미치게 할 작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글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는가? [...]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불합리는 마땅히 일종의 광기로 보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논쟁이나 저술을 중지할 때야말로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간 때이다(Hobbes 1651, 69-70).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추론능력이 생래적으로 유사하며, 좋은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훌륭하게 추론할 수 있다. 기하학에서 남이 오류를 지적해준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된 계산을 계속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

12)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이 모순적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물질적 실체'라는 말이 모순적인 것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 '의미' 자체를 구성할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 '의미'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홉스는 이러한 말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의미한' 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ortimer 1985, 77-82를 참조하라.

13) 수아레스(Francisco de Suarez, 1548-1617): 에스파냐 철학자·신학자. 신스콜라 학파의 시조. 형이상학 및 법철학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다.

이다(Hobbes 1651, 35).<sup>14)</sup> 추론능력은 감각이나 기억처럼 타고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사려처럼 경험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능력은 노력하여 얻어진다. 홉스는 그 노력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적절한 이름을 부여한다. 둘째 적절한 이름이 부여된 요소들에서 출발하여 정연한 방법으로 이름들을 결합하여 주장을 세운다. 셋째 여러 주장들을 결합하여 삼단논법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름들의 연결관계에 관한 지식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science)’이라는 것이다(Hobbes 1651, 35).

감각이나 기억이 사실에 관한 지식, 즉 과거의 일에 관한 지식이라면, 과학(적 지식)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련 또는 의존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런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장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원인이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유사한 결과를 낳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홉스는 언어와 추론 및 과학적 지식에 관한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간 정신의 빛은 명료한 말(words)이다. 우선 정의(定義)가 정확해야 애매함이 제거되고 깨끗해진다. ‘추론’은 그 ‘발견’이며, ‘과학’의 증진은 그 ‘길’이며, 인류의 복지는 그 ‘목적’이다. 반대로 ‘은유’나 무의미하고 애매한 말은 ‘도깨비불(ignes fatui)’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에 기초한 추론은 무수한 불합리 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며, 그 결과는 논쟁과 선동(煽動)과 모욕이다(Hobbes 1651, 36-37).

14) 홉스는, 사람들이 기하학적 진리를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이유가 “어느 누구의 야심도, 이익도, 또한 쾌락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반약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의 합과 같다’는 것이 영토에 대한 어떤 사람의 권리나 혹은 영토소유자의 이익에 반(反)하는 것이었다면,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틀림없이 기하학에 관한 모든 책을 불살라버리고 관계자의 힘이 미치는 한 이 학설을 억압했을 것이다”(Hobbes 1651, 91).

#### IV. 지식의 주제들

앞에서 우리는 홉스가 '사려'와 '학식'을 구별하여 전자는 경험에 의해, 후자는 추론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으로 보았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홉스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지식을 '사실에 관한 지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분류한다.<sup>15)</sup>

'지식(知識 knowledge)'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실에 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단정을 다른 단정과 연결하여 얻는 지식'이다. 전자는 결국 감각과 기억으로서 '확실한 지식(absolute knowledge)'이다. 즉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거나, 혹은 진행된 일을 상기(想起)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證人)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다. 후자는 이른바 '과학적 지식(science)'으로서, '조건적'이다. 예를 들면, '도형이 원(圓)일 경우, 그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은 모두 그 원을 이등분한다'와 같은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철학자(philosopher), 즉 추론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다(Hobbes 1651, 71).

'사실에 관한 지식'의 기록이 '역사'이다. 역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연사(natural history)'로서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자연적 사실이나 결과의 역사이다. 예를 들면, '금속', '식물', '동물', '지역' 등의 역사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사(civil history)', 또는 '정치사(political history)'로서 커먼웰스(commonwealth)에서의 인간들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역사이다. '과학적 지식'의 기록은, 하나의 단정을 다른 단정과 연결한 결과의 '실례(實例 demonstrations)'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러한 저술을 보통 '학술서적(books of philosophy)'이라고 한다(Hobbes 1651, 71).

'과학적 지식'은 두 종류가 있다.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물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자연철학'과 '시민철학'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홉스가

15) '사실에 관한 지식', 즉 '역사'와 '철학(또는 과학)'을 엄격히 구분하고자 한 것은 17세기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예컨대 베이컨은 역사와 철학은 인간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능력 즉 기억과 이성에 각각 기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자연사와 자연철학, 사회사와 시민철학은 각각 다른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전 저작에 걸쳐 ‘철학(philosophy)’ 과 ‘과학(science)’ 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Hobbes 1651, 72-73, 170, 664; Hobbes 1655, 3; Martinich 1998, 232).<sup>16)</sup>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philosophia)’ 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정치현실에 대한 지식과 같은 실천적인 지식도 ‘철학’ 이라고 했다. 이런 전통은 근대초기까지 계속되어 이론적·실천적 지식 전체를 보통 ‘철학’ 이란 말로 불렀는데, 근대철학자들은 이 말을 좀 더 확실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싶어 했고, 따라서 ‘과학’ 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베이컨(F. Bacon)도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 을 자연에 관한 철학 일반이 아니라 오늘날의 ‘자연과학’ 에 해당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베이컨은 학문을 ‘신의 철학(divine philosophy)’ 과 ‘인문학(human philosophy or humanity)’ 및 ‘자연철학’ 으로 나누고, ‘자연철학’ 을 ‘제1철학(philosophia prima)’ 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Bacon 1605, 40).

‘자연철학’ 은 ‘자연적 물체’ 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시민철학’ 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 를 대상으로 한다. 홉스가 과학의 종류를 이처럼 단순하게 구분한 이유는 우주의 구성요소를 ‘물체’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홉스에 따르면 이 물체들의 운동이 모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낳는다.

우주의 모든 구성요소는 물체이다. 물체가 아닌 것은 우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우주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 우주만물의 원인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한 방법이 전혀 필요치 않다. 보편적 원인은 오직 하나 뿐이다. 그것은 운동이다. [...] 운동은 운동 이외의 어떤 원인도 갖지 않는다. [...] 자연현상의 다양성은 오직 하나의 보편적 원인, 즉 운동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Hobbes 1651, 381, 672; Hobbes 1655, 69-70, 116, 124, 213, 412).

홉스는 이처럼 모든 물체를 ‘운동’ 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정서적·지적 자질들도 모두 생리적 현상으로 환원하고 이것을

16) 김용환(1988, 23)은 과학과 철학을 동일시하는 홉스의 견해가 Descartes, Spinoza, Leibniz, Kant 등과 계통이 같은 ‘대륙적인 것’ 이며, 이 점이 “그를 합리론자로 규정짓게 하는 단서가 된다” 고 주장했다.

표 1. 홉스의 과학(적 지식)의 체계(Hobbes 1651, 72-73)

과학 (논리 적 결 합 적 관 찰 이 라 고 한 다	자연 물 체 가 우 우 우 의 성 질 로 부 터 자 연 물 체 로 부 터 유 연 성 을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모 든 자 연 물 체 에 대 한 유 연 성 은 모 든 물 체 의 성 질 로 부 터 유 연 성 을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확 정 적 의 로 부 터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불확정적' 양과 운동으로부터 얻은 귀결. 철학의 원리 혹은 제 1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1철학(philosophia prima)' 이라고 한다			제1철학		
				'확 정 적 의 로 부 터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확 정 적 의 로 부 터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도형에 의한 것	수학	기하학	
						수(數)에 의한 것		산수	
					'특 정 한 물 체 의 운 동 과 양 으로 부 터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지구'나 '별'과 같은 세계의 큰 부분의 운동과 양으로부터 얻은 귀결	우주지(宇宙誌)	천문학 지리학	
				물체의 특별한 종류와 특별한 형태의 운동으로부터 얻은 귀결		기계학, '중량'에 관한 학설	기사(技師)의 학문 건축학 항해학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시적'인 물체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기상학		
				'영 적 물 체 성 질 로 부 터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별'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별빛으로부터 얻은 귀결 및 이와 태양의 운동으로부터 얻은 과학			계시법(計時法)
						별의 '영향'으로부터 얻은 귀결			
					'공기'나 에테르적 실체와 같은 성간(星間) '유동체'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지구상의, '감각'을 가지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얻은 귀결	'돌'이나 '금속'과 같은 '광물'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식물'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구 의 로 부 터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동물'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동물'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영상'으로부터 얻은 귀결	
'소리'로부터 얻은 귀결		음악							
'특 히 인 간 의 성 질 로 부 터 얻 어 온 것 이 라 고 한 다'	'인간'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	기타의 '감각'으로부터 얻은 귀결							
		인간의 '정념'으로부터 얻은 귀결		윤리학					
		'말'로부터 얻은 귀결	'과장'하거나 '비방'하거나 할 경우			시(詩)			
			'설득'할 경우			웅변술			
		'추론'할 경우		논리학					
		'계약'을 맺을 경우		정의와 불의에 관한 학문					
'정치체'가 지닌 우유성으로부터 얻은 귀결. 정치학 또는 시민철학이라고 한다				1. 커먼웰스의 '설립'으로부터 '정치체' 및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로의 귀결 2. 위와 동일한 것으로부터 '백성'의 '권리'와 '의무'로의 귀결					

‘생명의 지탱을 위한 운동(vital motion)’과 ‘움직이는 생명체로서의 운동(animal motion)’<sup>18)</sup>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은 연구대상이 되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그 물체가 하는 운동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제9장에서 ‘학술서적이 다루고 있는 내용’, 즉 과학적 지식의 주제들을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V.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시민철학’

앞의 표 1에서 본 것처럼 홉스는 학문을 크게 ‘자연철학’과 ‘시민철학’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의 주된 관심은 ‘시민철학(civil philosophy)’<sup>19)</sup> 또는 ‘시민과학(civil science)’에 있었다.<sup>20)</sup> 『법의 원리(1650a; 1650b)』<sup>21)</sup>도 “그러한 과학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기초”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민론(1642)』과 『리바이어던(1651)』 등도 모두 시민과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과학’이란 말을 홉스가 처음 창시한 것은 아니다. 홉스가 살던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에서 ‘시민과학’이란 말은 인문주의적 교육이론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말이었다. 당시의 학생들은 라틴어문법(grammar), 수사학(rhetoric), 시(poetry), 역사(history), 도덕철학(moral philosophy) 등을 배웠는데 이중 수사학을 ‘시민과학’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sup>22)</sup> 논리를 갖춘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

17) 우유성(偶有性 accidents)이란 ‘사물이 일시적으로 우연히 가지게 된 성질’을 말한다.

18) ‘자발적 운동(voluntary motion)’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자유 의사에서 나온 운동(행동)’이란 뜻이다(Hobbes 1651, 38).

19) ‘civil philosophy’는 시민 개인에 관한 철학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생활, 즉 시민의 사회생활에 관한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회철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며, 홉스가 ‘철학’을 ‘과학’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의 ‘사회과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 『리바이어던』에서는 ‘시민철학’과 ‘정치학’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지만, 『물체론』에서는 ‘시민철학’을 다시 ‘윤리학’과 ‘정치학’으로 나눈다.

21) 『법의 원리(The 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가 「인간본성론(Human nature)」이고, 제2부가 「정치체론(De corpore politico)」이다.

22) 스키너(Skinner 2004, 67)에 따르면, 수사학 교재로는 주로 키케로의 『착상론(De



득하는 기술이야말로 시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평화롭게 협동하기 위해서, 혹은 시민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키케로(Cicero)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명예롭게, 그리고 호혜적인 방법으로 상호 협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지도자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동료시민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평화롭게 협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충고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민과학'의 내용이 된다. 키케로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i) 동료시민에게 진리를 알려 줄 수 있는 지혜(wisdom)가 있어야 한다. (ii)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에 대한 지식과 적절한 추론능력(reason)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청중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이성이 밝힌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없으면, 지혜도 이성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정의를 호소하고, 의회에서 자신이 주장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iii) 우리의 논증을 받아들이게 하는 수사학(rhetoric) 또는 웅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kinner 2004, 68). 키케로에 따르면, "지혜 없는 웅변도 무익하지만, 웅변 없는 지혜도 쓸모가 없다" (Skinner 2004, 69 재인용). 키케로는 이처럼 이상적 시민의 자질을 추론능력(ratio)과 설득기술(oratio)로 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시민과학'의 내용으로 삼았다.

홉스는 '시민과학'의 목적에 대해서는 키케로 등의 고전적 견해를 받아들인다. 도시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 도시가 평화롭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자질이 필요하다. '시민과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시민과학'은 도시의 '재료'인 인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특별한 형태의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공동체생활에 적합한 본성과 그에 반하는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홉스는 시민의 자질로서 지혜와 추론능력이 필요하다는 키케로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수사학'을 '시민과학'의 주된 내용으로 이해하는 이른바 '인문

---

Invention)』과 『웅변가론(De Oratore)』 및 퀸틸리아누스(M. F. Quintilianus)의 『웅변가요육(Institutio Oratoria)』 등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학적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홉스에 따르면, 정의의 과학, 정책의 과학은 올바른 이성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성도 정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 이성은 '궁극적 목적'이나 '최고선'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능력'이다(박정순 1998, 249-250). 그러므로 이성(추론)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은 이미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가진다. '철학'은 "균형 잡힌 이성(well-balanced reason)"이다(Hobbes 1642, iii). '과학적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특별한 수사학이 없어도 "반대논증의 여지가 없도록 추론할 수 있다"(Hobbes 1642, 15). 그러므로 그는 『시민론』의 [헌사]에서 "지은이의 신용이나 저술의 참신성이나 문체의 장식이 아니라 오직 이성(추론)의 무게를 보아 달라"고 요청한다(Hobbes 1642, viii). 홉스는 이성에 의해 '시민철학'을 과학적 지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모든 정치적 논쟁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시민철학'은 자신이 최초라고 자부했다.<sup>23)</sup>

플라톤이나 다른 어떤 철학자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통치하는 방법과 복종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덕적 이론의 모든 공리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고,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느 때인가는 내가 발견한 진리[에 바탕을 둔] 완전한 주권의 행사에 의해 [...] [주권자가] 민중을 보호하고 교육하게 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Hobbes 1642, vii; Hobbes 1651, 357-358).

물론 홉스는 시민과학에 '웅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웅변도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웅변의 힘은 진리와 동떨어진 말꾸밈, 즉 '수사(art of rhetoric)'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art of logic)'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웅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마음속 관념들을 명쾌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 그 자체를 고찰함으로써, 또한 낱말들의 적절하고 명확한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인간의 정념들, 예를 들면 희망·공포·분노·연민 따위의 정념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정념들에 어울리

23) 홉스의 시민철학의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버첼(Burchell 1999) 참조.

는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전자는 참인 원칙들(true principles)로 이루어지는 화법이요, 후자는 [듣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의견들로 이루어진 화법이다. 전자의 기술(art)은 논리요, 후자의 기술은 수사다. 전자의 목적은 진리요, 후자의 목적은 승리다(Hobbes 1642, 161-162).

홉스가 『리바이어던』 제14장과 제15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연법 이론은 '이성적 추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잘 보여준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하나의 계율(a precept) 또는 일반원칙(general rule)이다”(Hobbes 1651, 116). '모든 사람은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본 자연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2의 자연법인 '권리의 상호포기와 양도에 의한 신의계약의 체결', '계약준수의 의무'를 규정한 제3의 자연법 등, 모두 19개에 달하는 자연법은 전부 '연역적 추론'에 의한 것이다(Hobbes 1651, 117, 120, 130). 홉스는 이 자연법들은 기하학의 원리들처럼 명증(明證)하여(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연법에 관한 연역적 추론을 너무 세밀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注目)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살기에 너무 바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아무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 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 자연법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 [...] 이러한 이성(理性)의 명령을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적당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명령은 무엇이 인간의 자기보존과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결론 또는 정리(定理)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원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의 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정리(定理)를, 권리를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법으로 불려도 된다(Hobbes 1651, 144-145).

옹변은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기존의 의견을 [설득의] 근거로 삼는, 인간의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설득의] 근거로 삼는 능력”일 뿐이지만, 이성은 “진리의 원칙을 [설득의] 근거로 삼는 능력”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자명하다(evident in themselves)”(Hobbes 1651, 710). 이러한 이유로 홉스는 이성(적 추론)에

근거할 때에만 ‘시민철학’은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Hobbes 1651, 711).

## VI. 맺음말

홉스의 과학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 과학은 추론의 결과이다. 경험(적 지식)은 결코 과학이 될 수 없다. 추론은 사물의 이름, 즉 ‘언어’로써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은 ‘화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물의 이름이나 화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합리’에 빠지고 만다. (ii) 과학은 대상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원인을 아는 것인데, 모든 원인은 운동(motion)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홉스가 과학의 ‘통일성’을 믿은 이유다. (iii) 과학은 실천적인 목적을 지닌다. ‘시민철학’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전쟁 없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철학이 연역적 추론에 의해 얻어진 과학적 지식이 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홉스의 이러한 과학이론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라이언(Ryan 1996, 21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를 사용하여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성적 추론을 하는 인간과, ‘운동하는 물체’로서의 인간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 홉스는 ‘경험은 결코 과학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모든 추론은 전제를 필요로 하며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는 이 전제들이 ‘사실에 관한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실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지 않은 연역논증들은 동어반복에 그쳐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홉스 자신도 『리바이어던』에서 제시한 추론들이 “나 자신에 대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Hobbes 1651, xii), 이것은 곧 그의 추론이 인간의 심리현상에 대한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점에 있어서 그의 추론은 ‘과학적 토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적 토대’ 위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Copleston 1961, 50; 진석용 1993, 135).

셋째, 이성적 추론에 의해 ‘시민철학’을 구축했다고 해서 그 이론을 누구나 다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홉스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

은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관습을 버리고 이성애 호소하거나, 이성을 버리고 관습에 호소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싶으면 관습에서 멀어지고, 또한 이성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이성애 반대한다. 정사(正邪)의 문제에 대해 붓과 칼의 논쟁이 그치지 않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Hobbes 1651, 91).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야심과 이익과 쾌락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성’에 기초한 추론이 행사할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홉스가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 이른바 ‘17세기의 천재들’과 함께 근대 과학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철학’의 주제는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나 에피쿠로스(Epicurus)의 그것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그의 심리학과 생리적·유물론적 방법은 프로이트(Sigmund Freud) 만큼이나 현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용환. 1988. “Hobbes 철학을 위한 변증론.” 『논문집(인문과학편)』 18집. 한남대학교.
- 박정순. 1998. “홉스의 계약론적 윤리학과 합리성 문제.” 『梅芝論叢』 15輯. 延世大學校 梅芝學術研究所.
- 진석용. 1993. “토마스 홉즈의 정치사상.” 『대전대학 논문집』 12권 2호. 대전대학교.
- Adler, Mortimer J. 1985. *Ten Philosophical Mistak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acon, Francis. 1605. *The Advancement of Learning*, Moltimer Adler et als, eds.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1. Vol. 28.
- \_\_\_\_\_. 저 · 진석용 역. 2001. 『신기관』. 서울: 한길사.
- Burchell, David. 1999. “The Disciplined Citizen: Thomas Hobbes, Neostoicism and the Critique of Classical Citizenship.” *The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 45.
- Copi, Irving M. 저 · 민찬홍 역. 1992. 『논리학 입문』. 서울: 이론과실천.
- Copleston, Frederic. 1961. *A History of Philosophy*. Westminster: The Newman Press. Vol. 5.
- Hobbes, Thomas. 1650a. “Human Nature.” William Molesworth, ed. 1839-1845.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London: John Bohn. Vol. 4.
- Hobbes, Thomas. 1650b. “De Corpore Politico.” William Molesworth, ed. 1839-1845. *The English*

- Works of Thomas Hobbes*. London: John Bohn. Vol. 4.
- \_\_\_\_\_. 1642. *Elementorum Philosophiae sectio tertia de cive*. William Molesworth, ed. 1839-1845.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London: John Bohn. Vol. 2.
- \_\_\_\_\_.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William Molesworth, ed. 1839-1845.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London: John Bohn. Vol. 3.
- \_\_\_\_\_. 1655. *Elements of Philosophy. The First Section, Concerning Body*. William Molesworth, ed. 1839-1845.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London: John Bohn. Vol. 1.
- Martinich, A. P. 1998. *A Hobbes Dictiona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Popper, Karl R. 1957. *The Poverty of Historicism*. Beacon Press.
- Ryan, Alan. 1996.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Tom Sorell ed. *Hobb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mon, Wesley C. 1973. *Logic*.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Skinner, Quentin. 2004. *Visions of Politics. Volume 3: Hobbes and Civi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ABSTRACT

## Hobbes's 'Civil Philosophy' as a Science

Seok-Yong Jin | Daejeon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cept and method of Hobbes's 'civil philosophy'. When Hobbes characterizes his own contributions to political philosophy, he generally describes himself as engaged in the writing of 'civil philosophy.' In his major works, he tries to rebuild 'civil philosophy' as a 'science' or scientific knowledge, and he believed himself to have achieved it. Hobbes emphasizes three aspects of philosophy or scientific knowledge. One is that it is the result of reasoning, where reason is understood literally as computation by means of 'words' and 'speeches', the abuses of which result in 'absurdity.' Mere imagination, memory, and prudence are not philosophy, because experience alone does not allow one to predict the future reliably. A second aspect is that 'philosophy' explains how objects are produced or generated. This view is inspired by his belief that to know something is to know its cause, and all causes are motions. He believed in the unity of science in the sense that everything is ultimately explainable in terms of the motions. A third aspect is the requirement that philosophy or science be practical. Finally I critically reviewed his theory of 'science' and 'civil philosophy.'

**Keywords:** Hobbes, civil philosophy, science, reason, Leviathan